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7월 12일(금)

(윤력 6월 7일)

Пятница

12 июля 2024 г.

№ 27 (1209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올해 어업인의 날은 7월 14일에 기념한다. 오래전부터 이날은 우리 국민적 기념일이기도 하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어업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7월 두 번째 일요일은 어업인의 날로 올해는 7월 14일에 기념합니다. 사할린과 쿠릴에서 이 직업의 기념일은 오래전부터 진정 국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날은 수산업계 종사자, 항만 근로자, 어류보호 종사자, 산업과학계의 대표자들과 수많은 낚시 애호가들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수생생물자원 채취 개발 및 가공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여러 세대의 손을 걸쳐 이룩한 수산업이 발달하여 기반이 탄탄한 가운데 수천 명의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국내 전 지역으로 자체 생산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생산>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주내 주민들에게 바다의 선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수군사작전 지역의 장비들과 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언급했다.

연방 및 사할린 지역 정부의 지원 속에 수산기업들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낚시 애호가들이 연어 어획을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된 어획 구역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수산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충성에 감사드리며 사할린과 쿠릴의 모든 어민들에게 행운과 번영과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정부

미래의 대학 설립에 따른 교육연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려

7월 9일 <2024 아르헨펠라> 집중교육의 일환으로 <사할린 테크 - 대학 4.0> 콘셉트(공유된 어떤 생각과 인식 또는 같은 목표) 개발을 위한 전략적 교육 연수가 이번에 4번째로 진행된 가운데 미래 교육기관의 업무와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 기업, 교육, 과학, 정부의 대표자들이 참가해 최종적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했다. 대학 설립의 핵심 개념은 기계공학 교육과 디지털화, 창의적 산업, 기술공학적 기업이다.

새로운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는 대학생들과 학자들과 사할린 선두기업들의 전문가들이 상호작용하는 기술의 혁신과 첨단 생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향할 방안을 구분했다. <사할린 국립대 첨단공학학교>는 사할린 지역 공학의 산실로서 중점 영역은 수소, 대륙붕개발 기획이다. 우리는 9개월 전 교육연수에서 이 아이디어를 고안해냈고, 지금은 수소 시험장이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지 보고 있다. 다음 연구 방향은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기후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바로 이곳에서 기후문제와 관련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해양경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 방면에 수산물 가공, 생명공학, 양식업이 있고,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과의 연계도 그중 하나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다양한 지역들의 거대한 친환경적 체계와 큰 경쟁이 있다. 우리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3일간 진행된 교육연수 결과 <사할린테크-대학 4.0> 기본 규정들이 작성되었고, 이 규정들 속에 미래 세계적 수준의 대학의 경영, 과학, 교육에 대한 기획이 포함돼 있다.

(사할린 주정부 정보정책국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 첫 전기버스 운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로운 전기버스의 운행노선이 마련돼 이 교통편으로 지방노선 25번(리스트웬니츠노예 - '고리존트'주택단지까지)이 운행된다. 새로운 저용량 소형 전기버스는 16인승으로 좌석은 13석, 입석은 3명이 탈 수 있게 설계되었다. 비상구를 갖추고 있고, 한 번의 충전으로 150km를 달릴 수 있으며, 운신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바닥이 낮은 출입구와 지지대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한 위성 내비게이션 장비와 에어컨도 장착되어 있다.

가족·사랑·충실의 날 맞아 사할린주의 명예 휘장으로 표창

가족·사랑·충실의 날 맞아 7월 7일, 8일 사할린주의 여러 자치체에서 많은 기념 행사들이 펼쳐진 가운데 행사는 공연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할린주의 '가족·사랑·충실'명예 휘장을 올해 124쌍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이 휘장은 7월 8일 러시아 가족·사랑·충실의 날 기념행사들에서 수여되었다. 이 명예 휘장은 여러 지방 한인들도 받았다. 홋스크에는 김영태·정영애, 김완목·이예고, 포로나이스크에는 이강주·곽춘하, 로경준·병연애, 토마리에는 박무균·김춘자, 네웬스크 지역에는 정윤식·장순년 쌍이 표창되었다고 전해졌다.

이 휘장은 가족력이 50년 이상이며, 자녀 2명 이상을 품위있게 키우고, 사할린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커플이 받을 수 있다.

사할린의 학교들에 <청년예산>, 6,800만 루블리 책정

유즈노사할린스크 27개 학교들에 6,800만 루블리를 들여 학교 공간을 개조한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교육기관들에서 <청년예산>으로 이 기획이 시행된다. 학생들의 아이디어 및 제안사항을 학생들과 어른들이 이용해 학교를 개선할 예정으로 올해 이 기획을 위해 6,800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15개 학교들에는 현대적인 장비들을 구입해 설치하고, 10개 교육기관에는 다양한 공간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2개 학교에서는 학교 구역의 부분적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22호 학교에서는 주요 보수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할린주, 도네츠크의 학생들을 위해 여름 휴식 제공

사할린주가 도네츠크 지역의 샤흐초르스크 학생들을 위한 여름 휴가를 조성한 가운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온 학생 90명이 켈렌드주에 있는 '라주레비 베레그' 요양 및 휴양 건강캠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일정에는 사파리 공원, 돌고래 수족관 견학, 바닷가와 수영장에서 수영, 대규모 다양한 그룹활동, 도전게임, 소년단원간 배틀(경쟁), 거품 파티, 디스코파티가 포함돼 있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항상 배우고, 가르치고, 배움을 실천에 옮겨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5 '스카즈카'유치원 이경애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뵈지 못한 이경애 씨를 만나 반가움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이경애(러시아 이름 알료나 보리소브나)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민이고 연령은 50대 중반이다.

교육자 출신인 그녀는 13년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 35 '스카즈카(동화)유치원에서 언어치료 교사로 일하고 있다.

필자가 이경애 씨와 알고 지낸 지가 25여 년이 지났다. '코레이스키 클럽'사회단체에서 활동할 때였다. 그 당시 알료나는 클럽이 추진하는 '미래'와 '전기'야영(캠프) 프로젝트에 참여해 캠프의 교육자와 교원 보좌를 맡은 청년들을 지도했다.

이경애 씨는 우글레고르스크구역의 레소고르스크란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가정에 다섯 남매들 속에서 자랐다. 넷째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배려를 완벽하게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늘 편찮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5살쯤 되어 막내 여동생과 함께 그 당시 이르쿠츠크에 있는 외할머니댁에서 지내게 되었다. 사실 학자마을(아카뎬고로드)에 있는 이모댁이었다. 여기에서 유치원에 가게 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때까지 이곳에서 자랐다.

"모든 아이들처럼 즐겁게 지냈죠. 외롭지는 않았어요. 딱 한 번만 엄마, 아빠가 옆에 없는 것 때문에 외로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이모부가 마당에서 이모네 아이

들과 제 동생을 차례로 안아서 올려 돌렸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7살이라 그렇게 안아 올릴 수 없는 나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감정이 좀 서운했죠..."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낮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경애 씨의 부모님은 두 딸을 다시 사할린으로 데리고 와야 했다.

어렸을 때부터 법률가가 되고 싶었던 알료나는 2년 동안 이르쿠츠크 법대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당시 그 대학에서는 여성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었고, 점수가 모자라 입학하지 못했다. 세 번째 도전해서 그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 대학으로 가다가 갑자기 '안 가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리고 산책하면서 이르쿠츠크 사범 전문학교까지 가게 되어 입학신청을 하고, 마침내 입학했다. 이곳에서는 그는 정말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교수들의 덕담과 충고를 그는 지금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다. 2년 만에 이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어 교사 겸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물론 알료나는 대학에서 공부할 꿈을 꾸었다. 그녀는 문학·역사학 교사가 되길 바랐다. 그러나 이런 전공은 딱 한 대학인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미 초등학교 교사로서 파견된 상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다. 그러나 역사, 문학 교사 전공은 포기

해야 했다. 부모가 사할린에서 공부하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대신 여름마다 가고 싶은 지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무너진 1990년대가 시작되어 여행에 대한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에서 러시아어와 문학을 전공한 알료나는 대학 4학년부턴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교사가 많이 부족해 4학년-5학년생들이 일찍 교편을 잡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7년 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베레즈나키촌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이경애 씨는 선생으로서는 좀 엄격한 편이다. 촌 지역이라 학생들이 '선생이 봐주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숙제를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료나 보리소브나는 그런 선생이 아니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인데 2점을 받은 학생이 꽤 많았다. 학생들이 집에서 책을 읽도록 만들고, 책임기의 재미를 맛보게 하였다.

"제가 가르치는 한 반 학생들 모두가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벌', 레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4권 다 읽었거든요."라고 알료나가 말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만큼 교사로서의 그의 근성이 높다는 말이다.

7년을 러시아어 및 문학 교사로 지내다가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이유는 교사를 하면서 사할린교육부 산하 교사자질향상소에서 심리학 교사(상담교사) 2년 과정을 졸업하고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녀가 일했던 학교에서는 심리학 교사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나중에 제1김나지아에서 심리학 교사(상담 교사)로 근무했고, '로드니크'사회단체를 비롯해 여러 사회적 기획들에서 심리학 전문가로서 주로 봉사활동을 했다.

2007년부터 이경애 씨는 유치원들에서 활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심리학 교육자로 일했는데 나중에 언어 치료 교사로 활동을 했다. 현재 그는 이미 13년째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5호 '스카즈카(동화)유치원에서 언어 치료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유아들과 일하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한다. 전문가 중에서 알료나 보리소브나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전문성을 가지고도 그녀는 유치원에서만 일한다. 유치원 밖에서는 어린이 언어 치료활동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식 일자리 외에도 또 다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다.

최근 몇 년간 이경애 씨는 줄바, 바차타 댄스 등 피트니스 춤 사범으로서 도시 소셜 프로젝트에 참여해 55세 이상 여성들이 무료로 피트니스 춤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또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한다. 알료나는 사할린전문예술학교에서 무용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실용심리대학에서 댄스동작테라피 교사 자격증도 따냈다. 자격증 있는 무용강사, 사범 등으로서도 자격이 충분하다.

5월 9일에는 전 러시아 줄바 교실들이 영상 플래시몹을 했는데 알료나의 제자들도 이에 참여하도록 많은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근 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도 무용 담당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 단체가 운영하는 요리교실(김밥, 오징어 볶음, 짬뽕 등 만들기)을 다니다가 그에게 무용단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담당자가 잠시 개인 사정으로 무용단을 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요일 아침마다 이곳에서 줄바교실도 열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사할린주 심리학 전문가 협회'의 한 설립자와 임원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협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기획들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과 장애아를 위한 언어치료 사업도 하고 있다.

이경애 씨는 이렇게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보냈고, 삶을 유익하게 살려고 한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의 날개>, 오프로드 차량 경주 개최

<사할린의 날개> 비행·음악·스포츠축제 10주년 기념으로 '푸쉬스티 트로피'오프로드 차량들의 경주를 사할린 주민들도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이번 경주는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로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서 조성된다. 7월 20일(토)에는 특별히 준비된 원형 트랙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가운데 11시에는 TP-1(최소로 개조된 오프로드 차량들)이 출발, 12시에는 TP-2(오프로드 차량)들이 나서고, 13시 30분에는 '코틀렛'(완전 오프로드 차량 또는 경주를 위해 특별 제작된 자동차) 경주용 차량들이 경주에 나선다. 15시 45분에는 마지막으로 UTV(버기카: 모래 위 같은 곳을 주행하는 오프로드 차량)급 버기차들이 출발한다.

오프로드 차량의 범주에 따라 노선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각각 1시간 동안 각 그룹에서 참가자들이 주행하는 완주 수에 따라 우승이 결정된다.

이번 경주 개막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우승자 시상식은 17시 15분에 진행된다.

"<사할린의 날개>비행·음악·스포츠 축제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3년간 중단되었다가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지난해에 재개되었다. 이 행사의 특징은 완전 무료라는 것이다."라고 스포츠부가 전했다.

Na «Крыльях Сахалина» пройдут зрелищ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недорожников

Гости десятого юбилейного фестиваля авиации, музыки и спорта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могут поболеть

за островитяна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недорожников «Пушистый троф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язания пройдут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20 июля на специ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трассе в формате кольцевого трофи стартуют одновременно все участники. В 11:00 на старт выйдут автомобили категории TP-1 (внедорожники с минимальными доработками). В 12:00 на линию встанет категория TP-2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внедорожники). В 13:30 начнутся гонки в абсолютной категории на «котлетах» (глубок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ные авто или специально построенные для состязаний болиды). В завершение в 15:45 на трассе появятся багги в классе UTV.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атегории внедорожников маршрут стартов будет усложняться.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ят по количеству кругов, 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пройдут за час в каждом класс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ачнется в 10:00, а награждать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ут в 17:15.

«Фестиваль авиации, музыки и спорта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пройдёт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с 19 по 21 июля.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возрожде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ле трё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Уникальность события в том, что он является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ым», — пишут в министерстве.

유즈노사할린스크, <모두에게 친절한 도시>전 러시아 사회적 기획에 동참

가족, 사랑, 충실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3가지 관광 코스를 진행했다. <모두에게 친절한 도시>기획은 안텍스와 전 러시아 지방자치발전협회의 후원으로 러시아 연방 국내 경제은행이 국가두마와 전략 주도청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광센터의 안드레이 수호노스 소장에 따르면 이 기획은 7월 5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 전 도시에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기획의 주요 목적은 도시환경의 접근성과 온라인 지도상 기호 표시로 시설들에 대한 정보화의 수준

을 향상시키고, 통합노선 구성에 주민들과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데 있다. <모두에게 친절한 도시> 연방기획에 참여하기 위해 3개의 코스가 준비됐는데 그중 2개 코스가 도보 코스다. <중앙 콤무니시체스키> 코스는 거리 3.3km로 이 거리에 위치한 문화기관들과 콤무니시체스키 거리를 따라 걷는 길이고, <모르스키에 수즈브(바다의 운명)> 코스는 3.9km로 사할린스카야 거리의 소공원을 따라 걷는 길이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13km의 코스는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는 길이다. 모든 기획의 참가자들은 철도역 광장에서 출발해 가까운 시공원에서 코스를 종결짓는다. 코스들은 도시 소공원들, 명소들, 문화회관으로 구성돼 있다. 자전거 애호가들을 위한 코스는 광장에서 출발해 코스를 따라 체호브 국제극장과 '크리스탈' 빙상장, '포베다' 종합추첨박물관, 가까운 시공원으로 이어진다.

참가자 중 가장 어린 연령은 3세였다. 편하게 다가가 수 있는 도시환경 평가를 위한 행사에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발달장애아, 고령층 대표들과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이 참가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о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соци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Гостеприимный город для всех»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и по тре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маршрутам, чтобы оцен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роект «Гостеприимный город для всех» реализует ВЭБ.РФ совместн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Агентств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ри поддержке Яндекс и ВАРМСУ.

Как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дрей Сухонос,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в городах России с 5 по 14 июля. Основная его цель -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доступной среды,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и об объектах путем нанесения отметок на онлайн-карты, а также вовлечение насе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бизнеса в формирование инклюзивных маршрутов.

(8면에 계속)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내년 첫 실시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9일 공포 재외동포청, 지원 체계화 나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가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4.1.16. 공포 / 7.17. 시행) 개정에 이어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 경제상태 등 생활 여건을 2년마다 조사하기로 정했고,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우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주귀국 신청 절차도 체계화된다.

신청서 접수는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두 달 앞으로 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비롯해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에 대해 사할린동포 업무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장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이후 철회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대상자 결정 기준이 훈령에 신설되고 시달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할린 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신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조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헤르손 고려인 단체, 러시아 연방 소속 사회단체로 등록 시작

헤르손 지역 고려인들이 러시아 법령에 따라 '헤르손주 고려인연합회' 명칭으로 민족사회단체 창설을 위한 서류 등록에 나섰다. 새로운 조직의 목표는 러시아 내 다른 한민족 단체와 역사적 고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러시아 지지'러시아 기업인 단체의 헤르손 지부 농업위원회 위원장이자 사회활동가인 김 파벨이 밝혔다.

1950년~60년에 고려인들은 농업을 위해 헤르손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는 약 200여 가구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헤르손 고려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기라서 그

들 모두가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김 파벨은 러시아 국영통신사인 '노위스티'를 통해 전했다.

또한 그는 헤르손주의 고려인사회는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유는 유로마이단은 우크라이나에게는 기만이자 함정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나는 '오렌지 혁명'과 유로마이단의 열렬한 반대자였다."고 말하고, 유럽 조직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인 경제 협력자로서가 아닌 판매 시장으로서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헤르손 지역이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이 마침내 헤르손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표명했다.

러시아의 대형 관광회사들, 쿠릴 열도에 호텔 및 글램핑 건설 위해 투자할 예정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재이자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의 지시로 사할린주 정부와 공동으로 극동 및 북극개발공사와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조성한 쿠나쉬르 사업-사절이 종료되었다.

7개의 러시아 대기업과 관광 분야를 운영하는 기관이 쿠나쉬르섬을 방문하여 호텔-놀이단지과 글램핑 건설을 위해 유망한 장소들을 시찰했다.

7월 8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업-사절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엄청난 부를 안고 있으며, 이 지역은 사계절 관광개발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업-사절단은 전 러시아 섬들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게 한다. 쿠릴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 방면은 사할린 주민들에게도 흥미롭다. 따라서 우리는 섬들의 제반시설을 개발하고, 추가 항공편을 도입하며, 투자자를 위한 편안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관광개발은 전 지역의 발전을 수반한다. 이곳 기업은 호텔을 건설하여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고, 현대적인 공공장소가 재정비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 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사절의 주요 목적은 쿠릴열도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 가능성의 지역들에 대한 사업-공동체의 정보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극동개발공사는 사할린주 정부와 공동으로 관광 분야에서 기획 실행을 위한 8개의 투자현장들을 구성했다.

극동개발공사의 니콜라이 자프라가예브 회장은 "투자 제안은 충분히 검토되어 투자자들과 쿠나쉬르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이 투자기획에 투입될 투자금 규모는 2억 루블리에서 20억 루블리까지 다양하다. 투자현장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지금은 이에 따른 새로운 기획에 착수하기 위한 토지와 제반시설 및 다른 지원책 등에 대한 요청안들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현장은 제한이 없다. 즉, 쿠릴열도의 가능성은 무한하여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획의 수익성 있는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사업-사절단은 투자지역 방문을 통해 많은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이는 향후 투자결정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쿠릴리' 선도개발구역이 제공하는 쿠릴열도에서의 우대정책으로서 기업이 20년간 면세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세금 특혜와 토지확보 및 제반시설 보장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캐피탈 그룹'회사의 투자 이사 그리고리 크류코브는 쿠릴은 높은 투자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 지역 개발에 따른 연방과 지역의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가장 먼저 교통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기술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 있던 관광은 향후 강력한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며, 5년 - 10년 내에 이 지역은 이 방면에서 힘차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에게 제시된 투자현장들은 호텔과 관광, 놀이시설 구역으로서 적합했다. 아주 유익한 방문이었고, 방문 중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요소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각들로 모든 게 바뀌고 있다. 북극 및 극동개발공사가 제시한 투자현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 기획이 여기서 시작될 거라 확신한다."고 투자자가 말했다.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공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7 сентября 2024 г. .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공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공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공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граждает певицу Аниту Цой медалью ордена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I степен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аграждает народную артистку РФ,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бщества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Галерея «Мастер» Аниту Сергеевну Цой медалью ордена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I степен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размещен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опубликования правовых актов РФ. В тексте документа говорится, что Анита Цой удостоена награды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эффективное реш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задач и многолетнюю добросовестную работу».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Награждены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Семья,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8 июля в России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В честь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в ряде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ись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прошло награждение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ья,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Как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Почетного знака удостоились 124 семьи. Среди них и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Так, 7 июля на Сахалине в городе Холмске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супружеские пары Ким Ен Тхя и Чен Ен Е (на фото), Ким Ван Мук и Ли Еу Ко. В Томари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региона «Семья,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была отмечена семья Пак Му Гун и Ким Чун Дя,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супружеская пара Тен Юн Сик и Тянь Сун Нен, в Поронайске семьи И Гай Чю и Квак Чун Ха, Ро Кен Цуй и Бен Ен Э.



Такой Почетный знак получают супруги с семейным стажем 50 лет и больше, достойно воспитавшие как минимум двоих детей и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не менее 15 лет. При награждении почетным знаком семья также получает денежное поощрение в размере 25000 рублей. Семьи, которым вручают Почетный знак, являются примером супруже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и достой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дл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ш корр.)

Херсо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здают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гистрации документов по созда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оссийск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Целями н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являются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с другими корейски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в России и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пора России» в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Павел Ким.

Корейцы начали массово переезжать в Херсонскую область в 1950-1960-х годах для заняти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По разным оценкам сейчас в регионе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200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О херсонских корейцах известно 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в Южной Корее. Они все также переживают, что время сейчас неспокойное, держат кулачки за нас», – поделился П. Ким с РИА Новости.

Он добавил, что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в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да приходу России, потому что евромайдан был обманом и ловушкой для Украины.

«Я был противником всего этого, причем ярким противником «Оранжевой» революции и Евромайда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также объяснил, что Украину были готовы принять в Европ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олько как рынок сбыта, а не полноцен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а.

Он сообщил, что с приходом России наконец-то будет наведен порядок в области.

В Астрахани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6 июля 2024 года в здании Астрахан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филармонии прошел ежегодный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IX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10-летию Астраха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Хамке Идон» (Идти вместе) и 16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лгоградской,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Калмыкии и другие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 проведение выставки картин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и предметов народного быта, выступление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розыгрыш корейских призов.

Астраханск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Хамке Идон» была создана в 2014 году. Сегодня у нее пя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в Астрахани, Енотаевском, Лиманском, Харабалинском и Черноярском районах Астраха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s://t.me/saramkor>

В СахГУ могут открыть секцию тхэквондо

Студенты СахГУ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тхэквондо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Градоначальник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депутатом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езидентом город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Юрием Им и президентом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Торнадо» Павлом Ри. Он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среди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Конечно, поддерживаю идею популяризации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наравне с другими. Сейчас в спортивном клубе «Торнадо» занимаются порядка 500 детей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в планах у руководства организации – удвоить их количество. Я считаю, что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и любовь к спорту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ивать с детства», – написал мэ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ции и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планируют подписать Соглашения с СахГУ и открыть секцию для студентов. Сейчас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иматься тхэквондо есть у воспитанников нескольки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учеников школ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олицы. Вла-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и прорабатывают вопрос открыт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Надсадин добавил, что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город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Это мож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тхэквонд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поможет ребятам выйти на новы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и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 художником Михаилом Тянь

Ким Моисей, культуролог,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Дом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новостей Караван INFO,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ели 8 июля 2024 года персональную выставку и творческую встречу с художником, членом-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Петров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и и искусств Михаилом Тянь. Выставка называется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воим Указом установил 8 июля как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В целях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и духовно — нравствен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постановляю: установить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и отмечать его 8 июл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стали ООК,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 участию в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худож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Федеральных национально — культурных автономий (ФНКА),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оддержка оказывалась теле и радиоканалами, С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лужбой новостей Караван INFO, газетой и сайтам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е сарам.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дено с целью освещ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достижен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их достижений.

Программа состояла из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картин, приветствий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выступлений коллег художника, призн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активис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СМИ.

Перед началом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яркое выступление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Бом парам, которое придало приподнятое настроение у участников.

Ведущий встречи Моисей Ким кратко рассказал, как возникла идея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художника Михаила Тянь именно в стенах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Как такая творческая встреча совпала с Днем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когда в России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2024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семьи. И это подвигло советника директора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тветственную за культурные проекты Н.О. Альтнер найти прави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проведение столь значим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ветственные слова прозвучали от имени директора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Анны Андреевны Полежаевой её советниками Мехрибан Садыговой и Натальей Альтнер, которые отметили, что Обще-

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 свои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крепление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хранение самобытности, языка, традиции и обычаев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оходят различные семе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флеш-мобы, конкурсы,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азднование традиционно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в Муроме. Там торжество встречают ярким концертом и масштабным фестивалем, который охватывает весь город. Именно в эти дни многие пары стремятся заключить брак поэтому загсы нередко проделывают часы работы и не регистрируют разводы. В День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вручают почетные медали «За любовь и верность» супругам, прожившим вместе 25 лет и больше, которые подают пример крепких семейных уз и достойно воспитывают детей.

Виножник торжества Михаил Тянь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ем жизненном пути, поисках в творчестве, о множестве выставок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а Кавказе и в большей мере теперь в Москве

Коллеги художника также отметили своеобразие и талант Михаила Тянь. Это Николай Наумов, профессор искусствовед, скульптор заслуженный художник, скульптор, Евгений Ефремов из Москов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художников», известная актриса Жанна Семилянская и другие его коллеги и друзья.

О значении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в общем и в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ях семьи в частности говорила заслуженный учитель РФ, доктор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Нелли Эм, у которой названных сыновей и дочерей свыше 1000 по России, Корее, Узбекистану, Казахстану...

Партнер меро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новостей ИНФО Караван приветствовала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с художником Михаилом Тянь.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имени Руководителя Дамилии Тасмагамбетовой передал её заместитель Виталий Данилов, отметивший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таких проектов для их Службы, работающей на пространствах Средней Азии, Казахстана и по всему азиатскому пространству.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Совета по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Юрий Московский отметил,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сохран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в стране, дружб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есьма интересным б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музыкантов семьи Петрищевых из 4 музыкантов, которые блестяще исполнили популярные мелодии и джазовые композиции.

Мероприятие завершилось дружеским чаепитием.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оссия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выстра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и РК

Россия считает необходимым выстра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КНДР, и с РК, однако Сеул занял враждебную Москве позицию.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Дмитрий Песков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изы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 России выбрать для выстраи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одну из двух Корея». «Де-факто, что мы имеем сейчас: мы имеем нашего партнёра в виде Пхеньяна, и мы имеем страну в виде Сеула, котора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антироссийским санкциям», - отметил Песков. «Что имеет в виду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трудно понять. Мы - сторонники выстраивания добрых отношений со всеми странами. Но как мы можем выстраивать добрые отно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м враждебную позицию»,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ремля.

Церемония начала работы парламента 22-го созыва отложена

Церемония начала рабо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22-го созыва, которая была запланированная на 5 июля, отложена на неопределённое время.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анцелярии спикера, новая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ет объявлена позднее. Причиной стал бойкот церемонии депутатами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действи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у которой большинство депутатских мест,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принять ряд спорных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обратилась с просьбой к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церемонии. Новая дата её проведения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а в ходе консультаций между конкурирующими партиями.

Лидер КНДР удовлетворён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КНДР заметно улучшила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годом ранее.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ая 1 июля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заседании пленум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Он не выступил с каким-либо посланием, направленным против РК или США, не заявил о стремлении страны расширить арсенал ядерного и ракетного оружия. По данным ЦТАК, пленум обсудил пять пунктов повестки дня, включая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на этот год и обеспечения трудовой дисциплины в ключевых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Пленум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партией и народом «ряд важных неотложных задач,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в процессе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изма корейского образц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вёл частич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4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оизвёл частич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Журналист телекомпании MBC Ли Чжин Сук назначен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Её назначение состоялось через три дн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ывш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Ким Хон Иль добровольно ушёл в отставку накануне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импичменту, инициированному оппозицией.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Ким Бён Хван назначе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финансового комитета. Директор бюджет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Ким Ван Соп назначен министром эколог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изведены шесть назначений на уровне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В Пучхоне открылся фестиваль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4 июля в Пу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рылся 28-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его работы будут показаны 255 фильмов из 49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112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и 99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В этом году в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включена категори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покажут 15 фильмов. Кроме того, состоится обсуждение влия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 киноиндустрию. На от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была показана «чёрная комедия» брит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Роуз Гласс «Любовная ложь, кровотечение» с Кристен Стюарт в главной роли.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покажут криминальный боевик гонконг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Чан Соя «Сумерки воинов: За стеной»

Через 10 лет число учеников в классе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будет менее десяти

Из-за сверхнизкого уровня рождаемости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в классе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через десять лет менее десяти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объединения учителей Good Teachers Movement, подготовленном к форуму по проблема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гноз основан на данны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огласно наихудшему сценарию,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в классе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которое составля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21,1, в 2033 году составит 9,3, а в 2034 году 8,8..

RKI

В Сеул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в честь 14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В понедельник 8 июл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Истоки дружбы: 140 лет первому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му договору".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отметил, что наши страны имеют долгую историю плодотворных контактов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помнить, как началась и развивалась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Пушкинский дом" Ким Сон Мён также напомнила об уникальном периоде в истор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когда корейский король Кочжон, спасаясь от преследований японцев, убивших его жену королеву Мин, более года (с 11 февраля 1896 г. по 20 февраля 1887 г.) вместе с наследником укрывался в росси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дубликаты самого первого двустороннего договора, а также многих друг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периодом у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выставлены на всеобщее обозрение в здани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музея Аппенцеллера.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до 31 августа включительно.

Справка "РГ"

Де-факт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были оформлены 7 июля (25 июня по старому стилю) 1884 года, когд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первое двусторон-

нее соглашение, которое называлось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и торговл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о вопросу о заключении договора начались в июле 1882 г.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их вел консул в Тяньцзине (Китай) 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 который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л первым посланником России в Корее и внес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У него с корейским королем Кочжоном сложились настолько хорошие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что корейский монарх в 1885 г., когда пошли слухи о возможном переводе Вебера из Кореи, направил россий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у Николаю II письмо с просьбой не отзываться дипломата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и торговл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1884 г.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укописный документ в формате 21 x 31 см и составлен из 13 статей и приложений, включающих торговые правила, тарифы ввозных пошлин и правила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Текст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оставляет 28, а на классиче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который в Коре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 качестве языка госуправления, - 32 страницы. Оригиналы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сохранились до наших дней и хранятся в Архив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Цент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иблиоте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Найти в мусорном баке миллионы

Сеул, 7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При неожиданном повороте событий два золотых слитка стоимостью около 21 миллиона вон (15 000 долларов) были извлечены из мусорной корзины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в районе Сочо, Сеул.

Владелец был идентифицирова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драгоценные предметы были ошибочно выброшены. По данным компании по управлению жилыми помещениями Worri Management, два 100-граммовых золотых слитка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в пакете из-под CD-плеера в зоне утилизации квартир Vanpo Xi. Текущая внутренняя цена золота составляет 104 830 вон за грамм, что позволяет оценить потерянные золотые слитки примерно в 21 миллион вон. Инцидент привлек в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онлайн-сообществе

появилос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ведомлени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утилизации обнаружил золотые слитки в футляре от проигрывателя компакт-дисков. Владельца просят связаться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чтобы вернуть сво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Три дня спустя 70-летний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заявил о себе. Он объяснил, что, собирая вторсырье дома, он по неосторожности положил пакет с золотыми слитками. Он не знал о пропаже, пока не увидел уведомление.

Находка также привела к ложным заявлениям со стороны лиц, выдававших себя за владельце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Woori Management сказал: «Изначально мы не раскрывали внешний вид золотых слитков или другие детали, что помогло нам установить законного владельца с помощью личных интервью и записей с камер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Зачем работать, если работа не нравится

Сеул, 7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Число молод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отказавшихся от поиска работы в мае,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400 000,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с 2020 года. Несмотря на объявленны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р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интеграции этой группы на рынок труда, их число снова увеличилось через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поскольку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с полной занятостью сократилось.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 398 000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29 лет в мае были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ыми, не искали работу и не готовились к ее получению. У этих людей не было каких-либо серьез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или инвалидности, но в ходе опроса они сообщили, что «просто брали отпуск». Они также отличаются от безработных,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искали работу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четырех недель, но не смогли ее найт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является вторым по величине за май с тех пор, ка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статистика начала собираться в 2003 году, при этом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462 000 в мае 2020 года.

Число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ых молодых людей сокращается год от года с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днако темпы сокращения начали сокращаться в марте. Оно достигло максимума в 56 000 в январе, снизилось до 5000 в марте, выросло до 14 000 в апреле и в конеч-

ном итоге выросло в мае. Чтобы решить давнюю пробле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о ряде мер в ноябре. Они включают расширение программ стажировок, стипендии для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навыков и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Однако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такая политика имеет свои ограничения, если для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15-29 лет недостаточно качестве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лияние высоких процентных ставок и сокращ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после пандемии привели к снижению количества качестве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желаемых молодыми людьми», - сказал Ким Гван Сук, руководитель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отдела Института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Эта ситуация привела к сокращению постоянной занятости и потере мотивации к поиску работы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оя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с полной занятостью сократилось на 195 000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что стало самым большим падением с начала сбора данных в 2014 году. Это привело к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разочарованных соискателей» сред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желание и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он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поиска работы, полагая, что не могут найти долж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х ожиданиям, таким как уровень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ахалинские мэры усилили контроль за ходом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в районах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и еженедельно инспектировать ход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в своих района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губернатор призвал обратить на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и содержание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Сахдормониторинг регулярно проверяет улично-дорожную сеть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а содержание которой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получают деньг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Так, в мае специалисты выявили 53 нарушения, а с начала года – 146.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бследования все замечания фиксируются в актах, там же указываются сроки на их устранение. Претензионную работу с подрядчиками уже ведут муниципальные власти — он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олжны бы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чистых и ухоженных дорогах, по которым могут безопас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и люди, и автомобили. А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контролируем, чтобы за бюджетные деньги работы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качественно и своевременно»,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О результатах недавних проверок мэры активно рассказывают в своих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Так, глав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Тугарев на этой неделе сообщил, что в селе Углезаводск начался ремонт улицы Новой.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л к укладке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на участке от ул. Ленина до перекрестка с ул. Торговой. На ул. Ленина, от ул. Почтовой до ул. Новой, обустроивается пешеходный тротуар. Всего будет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452 кв. метра», — отметил он.

Мэр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содержание улиц Некрасова и Школьной и дал поручения по устранению замечани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Глав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Иваш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приступили к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участков улицы Краснофлотской. Здесь должны устранить дефекты общей площадью 500 кв. метров.

«Прошу жителей города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тись к временному ограничению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улиц Корсакова. Перед рабочими стоит задача — закрыть карту асфальтом в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откие сроки», — написал он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Охинский мэр Евгений Михлик отчитался, что подря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МКП «Охаавтотранс» приступила к устранению нарушений, выявленных комиссией Сахдормониторинга на улицах Карла Маркса, Блюхера, Красных Партизан, Дзержинского, Комсомольской, 60 лет СССР, Ленина, Вокзальной и Шко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вела с подрядчиком претензионную работу, после чего рабочие убрали с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мусор и пыль. К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и обновлению разметки на дорогах в северном городе приступят при наступлении 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боты по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дорог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должны быть завершены к 1 июня, в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 не позднее 15 июля.

Российск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планируют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ц и глэмпингов на Курилах

Завершилась бизнес-миссия на Кунашир, котора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и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ручению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Семь крупных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посетили остров 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остинич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глэмпингов. 8 июл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участниками бизнес-миссии.

«Курилы — это невероятное богатство России. Потенциал у территории огромный для развития всесезонного туризма, и такие бизнес-миссии позволяют открыть красоту островов всей Росси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ок на Курилы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интересно и сахалинцам. Поэтому мы развиваем на островах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води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ейсы на самолеты, создаем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инвесторов.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развитие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 бизнес строит гостиницы,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современ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оздаются рабочие мест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новная цель бизнес-миссии — привлечь новых инвесторов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повысить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ь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возможностях территории. Для этого КРДВ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формировала восемь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лощадок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в области туризма.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достаточно проработаны и отвечают интересам как инвесторов, так и жителей Кунашира. Размер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в проекты варьируется от 200 млн до 2 млрд рублей. Площадки презентованы инвесторам, и теперь ждем от ни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запросов — по земле, по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и другим мерам господдержки, чтобы начать реализовывать новые проекты. Эти площадки не являются ограниченными — возможность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еобъятна, поэтому здесь мы готовы помочь каждому инвестору найти подходящ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ыгодной реализации различных проектов. Участники бизнес-миссии получили

много новых впечатлений в ходе поездки.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и на принятии дальнейши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решений. Также мы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ом режиме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дающем бизнесу 20 лет работать без налогов, и территорию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ы», которая тоже дает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земли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сообщ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РДВ Николай Запругаев.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Capital Group Георгий Крюков считает, что у Курил высок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Сейчас существует много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по развитию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повы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и создание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Поэтому туризм, который здесь долгое время был в зачаточном состоянии, конечн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лучит мощнейши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я. В ближайшие 5-10 лет регион будет бурно развиватьс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лощадки, которые нам показали, подходят под гостинич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и рекреационные зоны. Очень полезная поездка, в ходе которой все обмениваются мыслями и идеями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КРДВ площадки мы все вместе проанализируем и осмыслим, уверен, что проекты здесь будут стартовать», — рассказал инвестор.

«Конечно, на Кунашире, как и на други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ложнее делать бизнес, но надо понимать, что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это наш ответ Исландии, они имеют огром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туристических аттракций природных вы не встретите нигде. Поэтому оцениваю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островов положительно. Мы осмотрели Лагунное озеро. Это потрясающее место, где, конечно, над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глэмпинг, и он будет иметь хорошую рентабельность. Ассоциация глэмпингов России будет привлекать инвесторов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озможно, это не только Кунашир, но и Итуруп, возможно, это будет Сахалин. Инвесторам интересно вкладываться в Восток. Нас познакомили с мер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они колоссальны, редко такое встретишь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По земле, по дорогам, по сетям готовы полностью идти навстречу инвесторам. Приятно, когда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Я рекомендую инвесторам вкладываться 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добавила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глэмпингов России и учредитель компании «Дикий дом», архитектурного бюро «Место» Жанна Кира.

«Не так много мест осталось, в которых на берегу океана достаточно девственно, это привлекает туристов. И поэтому потенциал очень существенный. А учитывая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тут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очень хорошие льготные условия. В КРДВ нам рассказали про льготный режим, дающий работать 20 лет без налогов, пр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льготные кредиты.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и существенное для гостиниц как персональ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 это пониженные с 30% до 7,6%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учитывая, что примерно 65% затрат идет на персонал, а зарплаты здесь вы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конечно, важно понимать, что нужно привлека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лететь сюд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Но, думаю, что это решаемый вопрос, тем более, что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не только на Москву, Питер, но и на центральную часть страны»,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ей Мусакин, управляющий партнер CronwellHotels&Resorts.

Напомним,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действует самый выгодный в России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 инвесторы на 20 лет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налогов на прибыль, имущество, транспорт, землю. Бизнес пользуется также налоговыми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преференц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землю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ек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Курилы». Сегодня в рамках этих двух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х режимов 32 компании вкладывают в более 19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ют 2,8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жителей Курил.

Участники интенсива «Архипелаг 2024» отработали сценарии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до официального открытия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интенсива «Архипелаг 2024» участник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е.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8 июля состоялось собран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гражданских учениях по сценариям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систем (БАС).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их ждет интенсив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 лекции, разработка сценариев, полеты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Участниками учений стали около 400 человек из 4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Сейчас в мире происходит промышленная революция. Некоторые называют ее цифровой,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а многоликая. Это н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цифровизац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Вы попали в регион, где эта промышленная революция бьет ключом,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Архипелаг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развиваем водород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ни известны уже давно, а мы начинаем внедрять их в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 на транспорте, объектах связи, при ликвидаци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Мы создаем целую отрасль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как сегмент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беспилотникам официально разрешено летать. У нас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ая база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ыстраивается современная система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летов, тестируется несколько систем управления. Формируется «цифровое неб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ПЛА применяются во множестве сфер жизни. Технологии помогают обнаруживать лесные пожары и стихийные свалки, искать потерявшихся людей,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ледовую обстановку. На «Архипелаге» презентуют сахалинские наработки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Кроме того,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ет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беспилот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БАС». Она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заказы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бизнеса по беспилотным перевозкам, выполнению мониторинга.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О важности развития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и тот факт, чт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был запущен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 Мы сегодня присутствуем при настоящем историческом событии. Уже второй «Архипелаг» посвящаем небу. Но если Новосибирс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больше про теорию, выставки, соревнования, то на Сахалине мы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практике. Чтобы научиться летать, надо летать,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БАС Университета НТИ 2025 Дмитрий Кайсин.

Учения по сценариям применения БАС на «Пушистом» позволяют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в ре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различ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и после внедрить их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БАС» Алексей Варятченко, выбрано 15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ценарие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доставка грузов, комплексные кадастровые работы, мониторинг линей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водных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ов. Сценарии и методики применения дронов, отработанные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дут основу для построения долгосрочных планов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в России.

Напомним, «Архипелаг» — ежегодный проект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интенсив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и стартапов, инженерных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команд, нау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развивают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этом году с 8 по 21 июля столицей масштабного интенсива стал Сахалин.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Платформа Национальн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инициативы (Н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АСИ),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проектов НТИ и Университет 2035.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устили первые электробус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маршруты вышли новые электробусы. Транспорт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м маршруте № 25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ЖК «Горизонт». Работу новых «Газелей» провер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е компактные электробусы малой вместимости рассчитаны на перевозку 16 пассажиров: 13 на стационарных сиденьях, 3 стоя. Запаса хода на одной зарядке хватит на 150 км. Электробусы приводятся в действие 136-сильным синхронным электромотором и аккумуляторной батареей емкостью 81 Кв/ч. Для перевозки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электробусы оборудованы низким полом и аппарелью. Кроме того, они оборудованы спутниковой системой навигации и системой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проверил как в области выполняют поставленную задачу —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наземного метро до 30 минут. Сейчас расписание составляют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пассажир мог садиться в пригородный поезд и перемещаться от Корсакова до Долинска со всеми останов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го их будет 12.

— Фактически проверяем, как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нашего наземного метро к учебному году. Нам важно, чтобы людям было удобно добираться в час пик в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на работу или домой. Сейчас начинают работать новые мультимодальные карточк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и в автобусе, и в электричке. Кроме того, проверил, как наш транспорт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Архипелага — 2024»,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рансфер к площадк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интенсива «Архипелаг-2024» организовано силами перевозчиков АО «Транспортная компания» и «Пассажир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До Корсакова пассажиров доставляют на поезде, далее до аэродрома Пушистый — на автобусах. Проезд по мультимодальной карт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бесплатный.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овместно с властя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лотно занимаемся реформой пассажи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бновляем автопарк, перестраиваем логику и график движен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чтоб интегрировать его в систему городских перевозок. Сейчас к нам приехало много гостей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интенсив «Архипелаг-2024», и у н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рить все нюансы работы новой систем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 добавил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Архипелаг»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8 по 21 июля. Осно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ут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0월 1~4일 서울서 세계 한인회장대회 열린다

재외동포청,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겸해 개최

이기철 청장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유대감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내실화 할 것"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오는 10월 1일~4일 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호텔월드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주최한다.

대회 기간인 10월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현직(2024.10.1. 기준) 한인회장 및 10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임원,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 인사 등 4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 기여'라는 목표 아래 동포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재외동포청 개청(2023.6.5.) 이후 동포 초청행사 및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하는 '동포사회 건의사항 피드백' 프로그램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시작한다.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동포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외,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른 새로운 통일 담론 형성과 통일을 위한 국제 사회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된다.

한인회 추진 <외국 교과서에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수록 프로젝트> 관련 워크숍과 재외동포 주요 정책에 대한 민생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분야별 현안 토론회를 신설한다.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무청 등 정부 부처별 재외동포 정책을 설명하는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발표, 대회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하는 랩업 미팅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기철 청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일회성·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작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지난 1년간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에 제시한 의견에 대해 그간 정부가 취한 조치를 피드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며, "진정으로 소통하는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올해 재외동포 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7월 18일까지 관할 재외공관 통해 신청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관련,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과 차세대단체, 경제단체, 조사연구단체 등의 활동과 한글학교 교사현직 연수,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단체는 7월 18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외동포청은 심의 위원회를 열어 동포단체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는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거주국 재외동포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동포사회에 대한 실질적 혜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회성, 전시성, 친목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되며,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의 사업, 영리목적 사업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천500달러 미만인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요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누리집 (<https://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첫 여성 서울시의장' 최호정 "엄마의 눈으로 생활정치 실현"

"후반기 2년은 결실" 상임위 활성화 주력...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제가" "서울시와는 건강한 긴장 관계" 인사청문회로 견제 "생활현장이 정치"

'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기훈 정수연 기자 = 1일부터 시의회 제11대 후반기 2년을 이끌게 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나 "어깨가 무겁다"며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겪은 경험과 특성을 의정에 접목해 시정과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거대담론에 가려진 현장을 찾는 '생활정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반기 2년이 개혁을 위한 땅 고르기의 시간이었다면 후반기 2년은 결실의 시기라며 시민이 만족할 결과를 내놓는 실력 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시를 견제·감시할 근거가 되는 정책 검토보고서 품질을 높이고 상임위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재적소 인사가 중요하다는 자신이 조례를 대표발의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시 기관장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시교육청 등 집행기관과는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건강한 긴장 관계'를 제시했다.

현안 중 서울시 지원이 폐지된 교통방송(TBS)과 관련해서는 번복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첫 외부일정으로 찾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의 최대 리스크인 저출생과 직결된 정책"이라며 엄마의 눈으로 점검해 '책임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강점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을 다니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2010년 서초구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고, 9대를 거쳐 현재 11대에서 활동 중인 3선 시의원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MB정부 최측근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첫 여성 서울시의장이 된 소감은.

▲ 기쁘다. 68년 만의 첫 여성 의장이라고 이렇게까지 주목받았지 몰랐다.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 우리 시대 당면 과제 중에는 엄마의 섬세함과 따뜻함,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 여성의 경험과 특성을 의정에 접목하고 이를 통해 시와 교육청 정책을 개선하겠다. 여성이 의장을 맡으면 의회가 더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 평범한 주부에서 시의원이 됐고 의장까지 올랐다.

▲ '생활 현장이 정치다'.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로 살았던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주는 말이다. 거대담론 정치가 놓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

고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

-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사무처 직원을 만났는데.

▲ 당연한 일이다. 지난 2년간 동료 의원들은 자주 만났지만, 사무처 직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다. 과별로 만나질 내지 하나

절씩 자세하게 업무를 보고해달라고 했다. 직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내부도 꼼꼼히 챙기겠다.

-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지.

▲ 지방의회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분이 많다.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의정 활동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시의회가 얼마나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관인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 후반기 목표는.

▲ 전반기 2년이 서울 개혁을 위한 땅 고르기의 시간이었다면 후반기 2년은 결실을 만들 시기다. 저출생·고령화, 서울 대개조, 디지털 대전환 등 서울이 마주한 미래 도전 과제에 의회가 먼저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겠다. 이를 위해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제가 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특히 11개 상임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사무처 소속인 56명의 정책지원관을 상임위로 배정해 상임위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것이다. 첫날 직원들을 만나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의 근거가 되는 검토보고서 품질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 협조할 일도 있을 텐데.

▲ 국회의원의 일은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일은 광역의원, 기초의원 의원은 기초의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데 지방사무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지나치다.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보면 국회가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는 무려 1만1천593건에 달했다. 과도한 요구로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 관행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 3선 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꼽고 싶다. 인사는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고 청문회는 올바른 인선을 위한 관문이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근거가 담긴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됐고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하반기 17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최호정 서울 시의회 의장. (사진 서울 시의회).

임기가 끝난다. 시와 협의해 필요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 TBS 지원은 어려운가.

▲ 지원은 끝났다. 근거 조례가 없으니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시의회가 지원 폐지 결정을 번복할 명분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 시가 개선안을 갖고 온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원론적 입장이다.

- 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 옮겨야 한다. 참척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계속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가족연합회 측에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새로운 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오세훈 시장이나 조직연 교육감과의 관계 설정은.

▲ 집행기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뿐이다.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는 것은 의회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제동만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아니다.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 역시 시의회에 맡겨진 책임이다.

다만 정책의 최고 결정자는 의회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리라 생각한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육청 반발이 여전한데.

▲ 폐지 전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먼저 통과시켰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조례로 대체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도달했다. 교사와 교육 현장을 믿는다.

- 의장 당선 후 부친이 조언을 했는지.

▲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이유로 되새기며, 말을 줄이고 시민과 현장, 동료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다.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때 주변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송무백열(松茂柏悅·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잣나무가 기뻐한다)이란 고사성어를 말씀하셨다. 품 넓은 포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Для участия в федеральном проекте «Гостеприимный город для всех»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3 маршрута, из них два пешеходных. Маршрут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3,3 км, проходит п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роспекту и учреждениям культуры, расположенным на нем; маршрут «Морские судьбы» — прогулка по скверам вдоль улицы Сахалинской (3,9 км). Для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был предложен 13-километровый маршрут по городу.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стартовали от привокзальной площади и финишировали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 Гагарина. В составе маршрутов — городские скверы,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и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Велосипедисты с площади направились по маршруту: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им. А. П. Чехова — ДС «Кристалл» —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Возраст самого юного участника велопогулки — 3 год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цен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овали горожане из категории маломобильного населения, дет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амы с колясками.

2024 아르히펠라그, 현대 러시아 영화 상영

2024 아르히펠라그(열도) 주최자들이 대규모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한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현대 러시아 영화들을 상영한다. 주최 측은 "집중교육 참가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현대 러시아의 영화들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며, 학자들과 판타지 작가들과 감독과 연출가들과 만남도 갖는다.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극동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날을 진행해 7월 13일-14일까지 극동의 팀들이 제작한 영화와 만화영화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영화관

'옥차브리' 소형 상영관에서 상영한다. <2024 아르히펠라그> 집중교육은 사할린지역에서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На Архипелаге 2024 покажут современные российские фильмы

Организаторы Архипелага 2024 подготовили также большую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Зрителям покажут современные российские фильмы.

"Приглашаем участников интенсива 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к просмотру и обсуждению совреме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фильмов. Кроме того, встретимся с учёными, фантастами, режиссерами и продюсерами! А еще впервые в России пройдут Дни кино и анимац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3-14 июля можно будет посмотреть мультфильмы и фильмы, сняты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командами", - отмет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смотр состоится с 11 по 18 июля в малом зале кинотеатра «Октябрь»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помни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интенсив «Архипелаг 2024» пройдет на острове с 8 по 21 июля.

Стародубскою에 마을에 건장한 꿈이 며칠간 마을 한가운데로 다녀

Стародубскою에 마을의 주민들은 건장한 꿈이 며칠간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Astv.ru가 전했다. 이 꿈은 7월 6일에 처음 목격되었는데 저녁에는 문화회관 반대편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를 작은 벤치에 앉아 있던 아이들이 알아채자 꿈은 바다 쪽으로 도망쳤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이 바닷가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7월 7일 주민들은 다시 이 꿈을 발견했는데 꿈은 마을 해변에서 쉬고 있었다.

В Стародубском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 центру бегал молодой медведь

Жители Стародубского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молодого медведя, который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егал по сел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журналисты Astv.ru.

Первый раз косолапого заметили 6 июля. Вечером он спокойно прогуливался напротив Дома культуры.

Его заметили ребята, которые сидели на лавочке. После медведь побежал в сторону моря. В связи с этим стоит быть осторожным, ночуя на побережье.

7 июля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снова заметили косолапого. Он отдыхал в районе набережной.

<사할린의 황금편자>, 올해 18번째 개최

제18회 <사할린의 황금편자> 사할린 주지사상 승마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한다. 7월 27일 아나와 지역 오픈키 마을 경마장에서 기수와 말들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진다.

방문객들은 조랑말 경주와 장애물 경주, 승마(경주는 200m - 2km까지 코스)대회를 비롯해 오락 프로그램과 예술단의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경기 개막은 10시에 진행되며, 관람은 무료다

이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실시되는 <인구통계학> 국가기획인 <스포츠는 생활의 표준> 연방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Золотая подкова Сахалина» в этом году пройдет в восемнадцатый раз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XVIII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онному спорту на приз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олотая подкова Сахалина». Зрелищ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всадников и лошадей пройдут на скаковом круге села Огоньк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27 июля.

Гостей ждут скачки на пони, конкур и дерби – скачки на дистанциях от 200 до 2000 метров, а также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ыступление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ткрытие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йдет в 10: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реализуем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